

“3천옥불 봉안 신심 복돋아”

관문사 창건 1돌 맞아 주지 운덕스님

“관문사는 불자 여러분들이 신심을 키우고 기도수행하는 때 머드 종합불교회관입니다. 창건 1주년을 계기로 기도정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수행처로서, 또 불교문화를 익히고 관람할 수 있는 도심포교당으로 문화공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난 6일 창건 1주년을 맞아 3천옥불(玉佛) 집안법회를 봉행한 천태종 서울 관문사 주지 운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은



것처럼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도량으로서 문을 활짝 개방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관문사내에 불교전시관도 마련하고 사물놀이, 서예, 꽃꽂이, 전통무용, 다도강좌 등을 운영 불교문화 창달에도 이바지하는 사람들과 이 시대에 걸맞는 사찰이라는 평가에서 공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힌 운덕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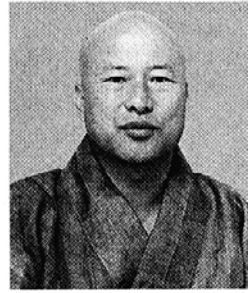
“관문사를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한다.

관문사 5천여 신도들이 재정을 비롯 사찰의 모든 일을 내집 일처럼 애정을 갖고 잘 해주어 고맙다는 스님은 이번 폭우때 한마음으로 자원봉사를 나섰던

(gslee@buddhapia.com)

■ 범음전하는 모임 '종경소리' 대표이사 성운스님

“자비의 말씀 시민들에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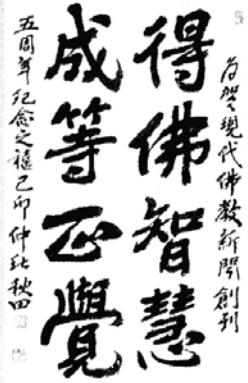
서울지하철범우회의 도움으로 1백 15개 역사에 4백60개의 '자비의 말씀' 게시판 설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지방청도청 등으로 게시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 역사와 공항, 터미널, 빌딩 엘리베이터 등 대중이 많이 활용하는 공공장소에도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설치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법을 접하고,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교의 당면 과제는 포교의 현실화입니다. 구호만 거창한 포교는 오히려 불교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죠. 장경 속 불법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종경소리'의 활동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포교의 신선한 시도입니다.”

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범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종경소리' 관계자들의 권유로 무주상의 마음으로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성운스님(삼천사 주지)은 “살아 움직이는 포교를 위한 젊은 청년 불자들의 아름다운 발의가 포교 일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운스님은 “9월 15일 총지종과

도핀스 기자 (psdo@buddhapia.com)



추진 김화수 화백 창간5돌 축하회

“특별지혜 성등정각(得佛智慧 成等正覺) :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무상 등정각을 이루리라”

〈법화경 수기품〉

추진 김

화수 화백

경주 세계

문화엑스

포에서 그

림을 그려

무료보시한 공로로 최근 일본의

문화진흥회가 수여하는 '99

국제예술문화상과 훈장을 받았다.



전국산악인연 통일기원 대법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는 3일 안동 흥은사(주지 혜욱)에서 흥은사 창건2주년기념 및 남북평화통일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대학진학을 포기한 자의 간을 급성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부친(오영수,47)에게 이식해 회복시킨 오강민군(19세, 경기도 부천시)에게 제1회 효행상과 부상 1천만원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암 前조계종 종정, 정동호 안동시장, 권정달 국회의원, 전국 30여개 지역 불교산악회 회원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광주·대구사원연 '화합' 대법회

광주·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6일 광주 무각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장 원명, 광주불교사원연합회 회장 천운, 동화사주지 성덕, 송광사주지 현지, 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박상규 국민회의새연회장, 이용택 대구·경북새연회장, 고재유 광주시장 등을 비롯 1천5백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법회를 개최했다. 대구사원련스님들과 신도들은 법회후 광주 금남로와 전남도청을 방문하고 망월동 묘역을 참배, 회생자 천도재를 봉행했다.



실천승가회 '불교운동사' 출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최화)는 1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50여명의 회원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7주년 기념법회 및 〈한국 현대불교운동사 3(10.27법년판)〉 출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식에서 의장 최화스님은 "10·27법년이 일어난지 19년이 지난 세월이 흘러 역사적인 장리가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자료집은 불교사체에 불교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관음종 노유은성어린이집 개원

관음종이 서울 광진구로부터 수탁한 구립 노유은성어린이집 개원식이 7일 거행됐다. 이날 개원식에는 흥과(관음종 총무원장) 지섭(관음종 총무부장) 화암(관음종 감찰부장)스님 등 종단 관계자와 금명수씨(어린이집 원장) 등을 비롯해 나종한(구의원) 최종덕(시의원) 임연식(새마을 지도자협의회회장)씨 등 지역인사를 포함해 2백여명이 참석했다. 노유은성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역사회의 탁아교육에 이바지하게 된다.

제5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정령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5회째를 맞았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됩니다. 2000년에 발표되는 신행수기 공모에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원고지 30매... 마감 12월18일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마감: 1999년 12월 18일
- △당선작 발표: 2000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 △시상내용
 - ◇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 특별상
 - 종단협의회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전종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교차로

18일 생계사 주지 진산식

통광 생계사 주지는 18일 오전 11시 생계사 대웅전에서 제 16대 주지 진산식을 갖는다.

종암승가대 총장 초청법회

법산 동국대 정각원 원장 스님은 12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교직원 및 학생, 일반 신도들을 대상으로 종암승가대 총장 현상스님을 초청, 법회를 연다.

'비판불교' 비판세미나

종림 고려대 장경연 교수 스님은 19일 오후 2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 제5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총형교수(이화여대)가 '비판불교에 대한 서양철학 입장에서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다.

청송김호수에 마련 전담

만오 포항 용주사 주지는 신도회와 함께 8일 운동회를 연 청송 제1

보호감호소 재소자들에게 라면 1백상자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정광사 종합불교회관 낙성 영제 천태종 울산 정광사 주지는 18일 삼촌 불봉안 및 종합불교회관 낙성식법회를 봉행한다. (052)277-7100

구룡사 진산사리 봉안

원봉 대구 구룡사 주지는 15일 구룡사 대웅전에서 부처님진산사리 봉안 및 만듬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1부 점안식, 11시부터 2부 대법회 및 진산사리진건, 3부는 오후 6시부터 점등식을 봉행한다.

정호회 대구법당 이전법회

법륜스님은 2일 정호회 대구법당 이전 및 불봉안법회를 봉행했다. (053)744-3025

美 버클리대서 강연

박익일 한국사회교육연구원 원장

(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버클리대학교에서 한국학센터 및 불교클럽 초청으로 '불교는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청담정보통신' 신입생 모집 이근우 청담 종합고등학교 교장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정보통신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돼 학교명을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로 변경하고 200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0333)691-8095

'민주통일복지국민연' 개소식

고준환 민주통일복지국민연합회장(경기대 교수)은 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경기빌딩 106호 사무실에서 창립기념 개소식을 열었다. (02)362-4060

故 안순진 보살 49재

故 안순진 정각노인대학장의 49재가 21일 오전 10시30분 청계사에 서 거행된다. (02)386-3878

성명서

- 불교자주권 수호와 조계종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

지난해 발생한 조계종사태이후 점차 안정되어 가는듯한 조계종단에 지난 10월1일과 2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의 조계종 총무원장 부존재확인소송 판결과 총무원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판결로 인해 또다시 조계종단 분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한국불교계는 물론 일반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작금의 조계종단 문제는 한국불교와 국가 전체의 문제로, 더 이상 조계종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아래 한국불교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불교의 자주권은 어떤 경우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금번 사법기관의 판결은 조계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깨고 새로운 종단분규와 한국불교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결과를 낳고 있다. 더욱이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인정받고 있는 종단 대의기구가 견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대표자를 재판부가 임명한 것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종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종권을 흔드는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사법기관에서 불교문제를 사법 심리할 경우 신앙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종교의 사회성과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1999년 10월 8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사태는 막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육화의 대화합을 생명으로 삼는 우리 불교계가 폭력적 단으로 전도되는 듯 비춰지고 있음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로 인해 조계종단은 물론 한국불교가 대내외적으로 명분을 잃었고 국민들과 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를 주었던 점을 뼈속깊이 되새기고, 대참회와 진정한 대타협을 반드시 이루어서 민족정신을 향토하는 불교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 낼것을 2천만불교도는 강력히 희망한다.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

역사적으로 한국불교는 나라와 민족정신의 지주로서 국민정서순화와 문화창달의 제 역할을 다해 왔으며, 민족을 지키고 조국을 보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순교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서 조계종단은 역대 선조스님들의 행업을 본 받아 종단의 위상에 맞는 승단을 이루고 21세기 한국불교의 중흥과 사회선도를 위해 모범적 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부대중이 대화합을 이루고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여 불교 위상에 걸맞는 명예를 회복하고 부처님의 대승정신을 바탕으로 이 사회에 자비광명을 드러워 중생구제와 불국정토 구현에 앞장서는 종단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 | | |
|---------------|------|
|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 홍인국 |
|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 전운성 |
|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원장 | 김성호 |
|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 이정혜 |
|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 김혜운 |
|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 주정배 |
|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 정경일 |
|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 불교총지 |
| 대한불교 원흥종 총무원장 | 종리원장 |
|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 총화종 |
|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 법륜종 |
| 대한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 법륜종 |
| 대한불교 법흥종 총무원장 | 일봉종 |
| 대한불교 일통종 총무원장 | 조동종 |
| 대한불교 일통종 총무원장 | 영통종 |
|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 삼문종 |
| 대한불교 삼문종 총무원장 | 열반종 |
| 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장 | 한국불교 |
| 대한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 대한불교 |
| 대한불교 진언종 총무원장 | 대한불교 |

*본 성명은 10월 7일 10시 30분에 개최된 제3차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표하는 것임.